제14강 오류와 비존재 Ⅱ

(1교시)

이방인: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면, 존재하는 무엇인가에 [“없다”라고] 비존재를 적용할[서술할] 수는 없다는 것이오.

테아이테토스: 물론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비존재를 존재에 서술할 수 없다면, "무엇인가”에 비존재[“없다”]를 서술하는 것은 그릇된 것일 것이오.

테아이테토스: 어째서입니까?

이방인: 이 “무엇인가”라는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존재하는 그 무엇에 붙어서 사용되지 않겠소? 이 표현을 존재하는 그 무엇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벌거벗은 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소이까?

테아이테토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방인: 따라서 “무엇인가” 하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존재하는] 어떤 것[어떤 하나]”을 말하는 것이라 해야 하지 않겠소?

테아이테토스: 물론입니다.

존재하는 무엇인가에 “아니다”를 서술할 수는 있다. “철수는 즐겁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to mê on’을 ‘to mêdamôs on’으로 보는 한에서 이런 서술은 불가능하다. 플라톤은 그리스어의 구조에 따라 이 논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한다. 즉 비존재를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에 서술할 수 없거니와, 이것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뜻한다.

1. 비존재를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에 서술할 수 없다.
2. 비존재를 “무엇인가”[존재하는 것]에 서술할 수 없다.

“무엇인가”라는 말은 홀로 사용될 수는 없고 반드시 어떤 존재하는 것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인가”에 비존재를 서술할 경우 존재에 비존재를 서술하는 것이 되며 모순에 빠진다. 이로부터 “무엇인가” 하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존재하는] 어떤 것[어떤 하나]”을 말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 하이데거의 해설: “<ti> legein은 on과 더불어 말해지는 것이며, 더 나아가 […] hen과 더불어 말

www.artnstudy.com

해지는 것이다. 각각의 무엇(Etwas)은 존재하며, 각각의 무엇은 하나의 무엇이다. <ti> legein은 또한 legein 자체의 의미에 있어 즉 일반적으로-무엇을-말함에 있어 존재와 하나-임(Eines)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반드시 하나/단수를 가리키라는 법은 없기에 이방인은 수적 구별을 개입시켜 다시 묻는다.

이방인: 이 "무엇인가(quelque)"는 "하나"를 뜻하고, "무엇인가들(quelques)"은 둘[雙數]을 뜻하거나 여럿을 뜻하지 않겠소이까.

테아이테토스: 그렇게 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겠네요.

이방인: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단적으로 아무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할 듯하오.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무엇인가"가 단수에 붙는 경우든, 쌍수에 붙는 경우든, 복수에 붙는 경우든,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어떤 존재(들)가 전제되고 있으며, 따라서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아무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국가』 478B, 『테아이테토스』 188E-189A)

그러나 여기에서 "mêden legein"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말을 하되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말한다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해도. 왜냐하면 위에서 논했듯이 "무엇인가"는 늘 (하나이든 둘이든 여럿이든) 존재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하되 – "무엇인가"를 말하되 –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이데거가 지적하듯이, "mê on을 말하려던[ausspricht=입 밖에 내려던] 사람은, 그가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침묵해버릴 것이다."(PS, §61) 그래서 이런 아포리아가 발생한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mêden legein)"은 말하되 그 말함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님 – 무(無) – 일까, 아니면 아예 말하지-않음일까? "무를-말함"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무를-말함"은 "아무-말도-하지-않음"을 달리 표현할 뿐인 것인가? 아니면 둘은 구분되는 것인가? 구분되되 결국 같은 것인가?

※ 말브랑슈는 『기독교 철학자와 중국 철학자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무를 통각하는 것과 통각하지 않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 무를 사유하는 것과 사유하지 않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디에스, 337쪽)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298-307쪽.

이방인의 다음 말은 이런 아포리아를 함축하고 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해야 하지 않겠소? 차라리 존재하지-않는-무엇[비존재]을 입 밖에 내려할 때 그는 사실상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야 하지 않겠소?(237E)

www.artnstudy.com

전반부는 무를-말함이라는 생각을 거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반문(反問)이다. 말하고 있되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를-말함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거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후반부는 무를-말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는 아예 말할 수 없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반문이다. 무를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파르메니데스가 이야기했듯이, 무는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을 "시험에 부쳐" 보려 했던 이방인의 계획이 일단락된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가 "이제야 확실히 우리가 부딪쳤던 어려움이 해결되었네요"라고 했을 때, 즉 "누군가가 이 '비존재'라는 말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느냐고 물음을 제기한다면 […]" 하고 이방인이 난문을 던졌을 때 그가 맞닥뜨렸던 역부족의 당혹스러움이 풀린데 대해 안도감을 표현했을 때, 이방인은 "아직 갈 길이 멀다오"라고 찬물을 끼얹는다.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제 이방인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더욱 극단적으로 몰아붙여 그렇게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 자체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다.

(2교시)

이방인: 아직 문제가 남아 있소, 젊은이. 그것도 가장 크고 가장 일차적인 문제가 말이오. 이제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소.

테아이테토스: 그게 무엇인가요? 빨리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방인: 존재[하는 것]에 다른 어떤 존재[하는 것](ti tôn ontôn heteron)를 갖다 붙이는 것은 가능하오.

테아이테토스: 물론입니다.

이방인: 하지만 비존재[존재하지 않는 것]에 어떤 존재를 갖다 붙이는 것이 가능하겠소?

테아이테토스: 그건 곤란하죠.

이방인: 우리는 수(數)를, 그게 어떤 수이든, 분명 존재로서[존재한다고] 이해하오.

테아이테토스: "존재한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무엇이 있다면, 수가 바로 그렇다고 해야겠지요.

이방인: 하니, 하나이건 여럿이건 수를 비존재에 귀속시키려는 시도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할 것이오.

www.artnstudy.com

테아이테토스: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이성(理性)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테이니까요.

이방인: 그런데 수를 떠나서 어떻게 "비존재들[있지 않은 것들]" 또는 "비존재[있지 않은 것]"라는 말을 할 수 있겠소? 아니, 어떻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오?

테아이테토스: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방인: 우리가 '비존재들'이라 말할 때 우리는 비존재에 복수를 적용시키고 있는 것 아니오?

테아이테토스: 분명 그렇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비존재'라고 말할 때는 단수를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오?

테아이테토스: 그것도 분명 그렇습니다.

이방인: 이렇게 존재[로서의 수]와 비존재를 함께 묶으려 하는 것은 정당한 것도 아니고 합당한 것도 아니오.

테아이테토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존재인, 그것도 탁월한 존재인 수를 비존재와 종합함으로써=엮음으로써 '하나의 비존재'나 '비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비존재'나 '비존재들'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 '비존재(들)'을 이야기하려면 단수나 복수로 이야기해야 할 터인데,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존재를 엮는 불합리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은 비존재를 사유하고 말할 때 부딪치게 되는 아포리아를 최종적으로 못 박는다.

www.artnstudy.com